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⑪ 정각원 주련

나옹 선사 선시와 '화엄경' 게송 사이 세 구절

돌계단을 오른 우리는 돈점의 스텝으로 정각원에 도착했다. 정각원은 동국대학교의 주법당으로 우리가 지나온 대각전을 비롯해 학교 전체의 신앙생활을 총괄하는 곳이다. 앞면 다섯 칸, 옆면은 세 칸의 거대한 법당으로 옛날 조선시대의 궁궐을 뜯어 만든 굴곡이 있는 건축물이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각원의 주련을 보기로 하자.

우리는 앞서 대각전을 산책하며, 학문 분야가 다양해졌음에도 천여 년 이상 한자에만 매달렸던 조선에 대한 백용성 스님의 한탄을 들은 바 있다. 오늘날 학문의 다양성은 얼마나 넓어졌으며 한자는 얼마나 시대에 뒤쳐졌는가 생각해 보면, 백용성 스님의 혜안에 감복할 따름이다. 불교도 이제는 한자에서 많이 탈피한 것 같다. 한글 세대를 위한 경전 시리즈가 나와 각광을 받은 게 벌써 30년 전이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한문 경전의 우리말 번역을 통해 불교가 고리타분한 한자에서 벗어나고자 한 백용성 스님의 발원을 실현한 곳이다. 동국대학교 역경원이 한글 대장경을 완역한 것이 25년 전이고, 이를 전산화해 공개한 것이 20년 전 일이다. 그런데 불교의 한글화와 우리말로 된 불교의 산실인 동국대학교 대표 법당인 정각원은 한자로 된 주련으로 둘러싸여 있다. 필자 또한 이를 이번 산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불교 한글화의 주역인 동국대학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사실 한자에 약한 것도 아니면서, 맨날 들리는 정각원 주련을 제대로 읽어 본 적도 없었음을 고백해야겠다. 그저 '東國常放大光明(동국상방대광명)'이라는 한 줄만 외우고 다녔을 뿐이다. 이번 기회에 정각원 주련을 한 번 읽어보고자 한다. 그런데 보통 사찰의 주련이란 네 줄의 사구게나 전각 앞 기둥의 개수에 맞춰서 많아야 두세 구절을 더 추가하는 정도인데, 정각원은 전각 앞면 기둥 뿐만 아니라 옆면 기둥에도 모두 주련을 걸어놨다. 총 주련의 개수가 16개이다. 단일 전각에 이렇게 많은 주련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동국대학교 정각원만의 특징일 것이다. 전문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山河大地眼前花(산하대지안전화)
산하와 대지가 눈앞의 꽃이요
萬象森羅亦復然(만상삼라역부연)
삼라만상도 또한 그러하네
自性方知元淸淨(자성방지원청정)
바야흐로 자성이 원래 청정한 줄을 알았으니



동국대학교 돌계단 중간에서 바라본 정각원.

전각 앞 · 옆면 기둥에 16개 주련
출처 모르는 '동국상방대광명' 등
여래현상품 · 현수품 사이 배치 의문

塵塵刹刹法王身(진진찰찰법왕신)
온 세계 티끌마다 부처의 몸이로다
無量劫中修行滿(무량겁중수행만)
한량없는 겁 동안에 수행이 차서
菩提樹下成正覺(보리수하성정각)
보리나무 아래서 정각 이루고
爲度衆生普現身(위도중생보현신)
중생을 제도하려 몸을 나타내
如雲充遍盡未來(여운충편진미래)
구름처럼 미래세가 다하도록 충만하다
東國常放大光明(동국상방대광명)
동국대학교에 항상 부처님 대광명이 비추고
法輪常轉於法界(법륜상전어법계)
부처님의 법이 더욱 빛나 온 누리에 쉼 없이 구르며
自他一時成佛道(자타일시성불도)
나와 네가 모두 함께 성불하리라
信爲道元功德母(신위도원공덕모)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
長養一切諸善法(장양일체제선법)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내며
斷除疑網出愛流(단제의망출애류)
의심의 그물 끊고 애정의 흐름 벗어나
開示涅槃無上道(개시열반무상도)
열반의 위 없는 도를 열어 보인다.
摩訶般若波羅密(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정각원 주련에는 작지만 친절하게 한글 설명이 있지만(위의 번역문도 이를 따랐다),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에 정각원은 아직도 한자에 사로잡힌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본래 정각원 주련이 〈화엄경〉 현수품의 내용이라고 어렴풋이 학부 화엄학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는 마지막 '마하반야바라밀'을 제외한 네 구절일 뿐, 나머지 내용이 더 있다는 것이다.

먼저 처음의 '산하대지안전화'로부터 '진진찰찰법왕신'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옹 선사 혜근 스님(1320~1376)의 선시(禪詩)이다. '무량겁중수행만'으로부터 '여운충편진미래'는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게송이다. '신위도원공덕모'로부터 '개시열반무상도'가 아까 말한 〈화엄경〉 현수품의 내용이며, 마지막 '마하반야바라밀'은 보통 종결하는 어구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정각원 주련의 출처와 내용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간의 세 구절이다. '동국상방대광명', '법륜상전어법계', '자타일시성불도' 세 구절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 '자타일시성불도'야 많이 들어봤겠지만 정각원 주련의 순서상 왜 지금 나타나는지 알기 어렵다. 이것도 '마하반야바라밀'처럼 종결하는 어구라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화엄경〉 현수품의 게송이 시작되어서 이상하다. '동국상방대광명'과 '법륜상전어법계'는 전혀 출처를 알기가 어렵다. 물론 동국대학교 주법당이니 동국의 빛이 당연하겠고 법륜이 항상 구른다는 것도 불교도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바는 없다.

문제는 왜 나옹 선사 선시와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다음에 저 구절이 위치하며, 또 그 다음에 〈화엄경〉 현수품의 게송이 이어지느냐이다. 나옹 스님의 선시는 온 세계의 두두물물에 법신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음으로 이 세계가 부처님으로 가득하다는 선의 총지를 노래하고 있다.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사구게는 우리를 구제하러 보리수 아래로 현상하신, 즉 가현하신 부처님을 찬탄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나옹 스님의 선시와 〈화엄경〉 여래현상품의 연결은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1불로 모아지는 다즉일(多卽一)의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점으로 모인 부처님 다음에 동국에 빛이 비추고 법륜은 멈추지 않으며 모두가 동시에 깨닫는다고 설해진다. 그러고서는 갑자기 믿음이 곧 열반에 이른다는 〈화엄경〉 현수품의 내용을 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부처님으로의 집약', '믿음에서 열반'이라는 이 구조 사이의 내용이다. 이제야 문제를 명확히 했음으로 답을 보이고자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산책자의 발걸음이 너무 쳐져 약속된 지면을 다 채워버렸다. 다음의 만남에서 이 해답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동국대 박사〉

10권 8장에 다양한 가르침 설해
지장보살의 유정 위한 공덕 보여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㉒ 〈지장십륜경〉의 배경과 서품

〈지장십륜경〉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을 탄생시킨 중국의 정치, 사회상은 과연 어떠했느냐는 점입니다.

〈지장십륜경〉이 펼쳐지는 5호 16국 당시 중국 사회상은 그야말로 지옥의 한 풍경 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세태를 눈여겨 관찰한 신행(信行, 540~594)은 시기적절한 시기상응(時機相應)의 삼계교(지장사상)를 탄생시켰고, 삼계교는 어려운 민중을 향하여, 무진장사상(경제적 혜택)을 실행하게 됩니다. 몇 백년간의 전쟁을 겪은 뒤 수(隋)의 통일(589년)은 전 시대의 상황이 어려웠던 것만큼, 이후 세대에게는 값진 사상과 의미 있는 결과로서의 귀결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隋)의 통일의 해인 589년 신라 원광법사가 수(隋)의 전신인 진(陳)의 장안에 들어가고, 같은 해에 삼계교 신행이 장안 진적사(眞寂寺)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원광 법사는 삼계교의 신행이 일으키는 무진장사상의 일면식을 유심히 새겨 신라에 '점찰보(占察寶) 내지 점찰행법(占察行法)'이라는 〈점찰선악업보경〉의 사상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99세의 원광 법사가 입적한 해(630)는 이후 고구려, 신라, 백제의 승려가 당(唐)에 들어와 불교를 배우며(634), 한반도에 불교의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장십륜경〉이 급물살을 타고, 신라에 들어온 시기도 이 경의 제작년도(651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갑자기 이유도 까닭도 없이 한 사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원광은 신라 사회에서의 지장사상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드디어 신라에 지장사상이 꽃피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장십륜경〉은 10권 8장으로써 다양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제1권 서품은 경이 설해진 동기와 배경을, 제2권은 부처님의 열 가지 지혜의 힘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3권부터 제5권까지는 '의지함이 없는 행(無依行品)'을, 제5권에서 제7권은 '의지함이 있는 행(有依行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제8~9권은 '선업의 길(善業道品)'을, 끝으로 제10권은 복전상품(福田相品)과 가르침을 부촉하는 '획익촉루품(獲益囑累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장십륜경〉 서품에서는 특히 경이 설해진 배경 및 동기와 함께 '지장보살'이 등극하는 장면을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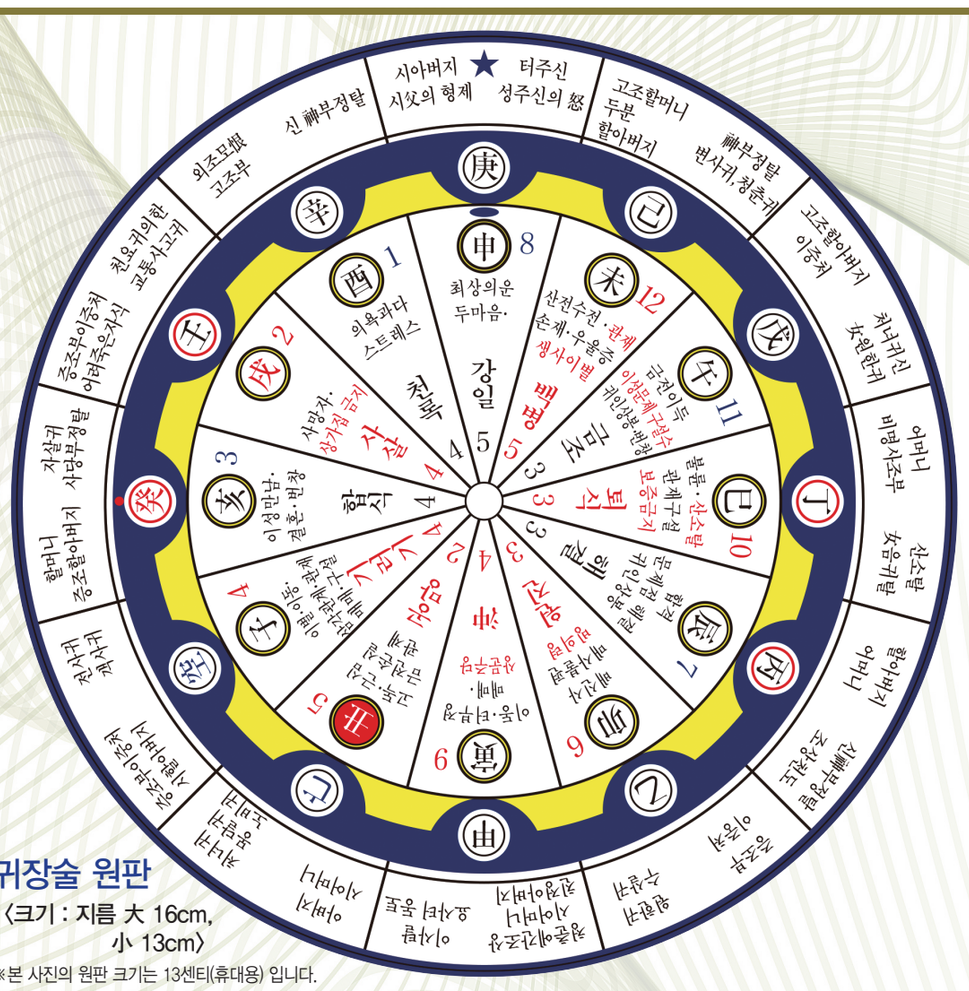
세존께서 '거라제야산'에 계실 때 수많은 선인, 비구 대중과 함께 하셨는데, 세존께서 〈월장경〉을 설해 마칠 때 온갖 꽃비와 함께 기이한 큰 법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삼보에 귀의하는 소리였으며, 모든 부처님의 큰 바다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부처님 세계는 광명이 비추며 일체 어둠 … 두려움 등을 여의고 평평한 땅에는 오묘한 즐거움이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중들은 갑자기 몸이 땅보다 무겁고 움직이기 어려웠고, 모두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인연을 의심하였습니다. 그 때 '무구생'이라는 제석천이 부처님께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여쭙고,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등장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지장(地藏)'이라고 하는 보살은 수 없는 과거 대겁(大劫) 이전부터,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오탁 악(惡) 세계에서 유정들을 성숙시켰다 하며, 지장보살의 온갖 공덕을 말씀하십니다. 그 때 지장보살은 수많은 보살과 함께 스님 형상을 띤 성문의 모습으로 남쪽으로부터 와서, 곧 부처님을 예배하고 게송으로 찬탄합니다. 이윽고 찬탄이 끝나자 의심하여 묻기를 잘하는 '호의문(好疑問)' 보살이 일어나 "지장보살이 어디서 왔고, 그 부처님 국토는 어떠하며, 지장보살이 어떠한 선근공덕을 성취하였기에 세존으로 부터 온갖 칭찬을 받는가?"는 등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대목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선근공덕(善根功德)을 설하시는 부분입니다. 지장보살의 선근공덕의 힘은 "모든 삼마지(安住 諸 三摩地), 즉, '수능가마', '사자분신' 삼매 등의 선정의 힘으로써 일체유정들로 하여금 훌륭한 공양거리로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게 하고 욕심 경계의 허물을 보고 청정한 마음을 갖게 하며 부끄러움을 갖추어 온갖 나쁜 법을 버리어 마음에 잊지 말게 하는 등 지장보살은 온갖 선정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유정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림사 주지〉



귀장술 원판
〈크기 : 지름 大 16cm, 小 13cm〉
※본 사진의 원판 크기는 13센티(휴대용) 입니다.
특허등록 30-0721929
※무단복제 및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강생 모집 | 일본점술 도궁술 가르쳐 드립니다.

천도제 지내드려라
사람인형 깨버려라
살고있는 집 주위에
금모래 뿌려라

- 귀장술 쉽게보는 원판 '내손안의 귀장술'입니다.
-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가 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제작 되었습니다.
- 문점자의 사주(연,월,일,시)를 알 수 없을 때는, 귀장술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DAUM 내 손안의 귀장술 검색
NAVER 내 손안의 귀장술 검색

21세기 영재철학관 010-8558-2345

8. 퇴 식
(억지로 살고 있다)
년 : 헛 살았다. 매사불성. 되는일이 없다.
땅팔고 싶다.
월 : 사표 근무환경 열악 가정불화 집팔려고 왔다.
일 : 기혼자는 권태기 미혼자는 결혼생각 없다.
색정사 여자로 인한 부정사
시 : 가게 사업장 적자운영

퇴식이 어디에 있던 억지로 살고있다.
퇴식 합식 동주는 돈벌어도 빈손 퇴식 인자가.
사주원국 년지에 辰 戌 丑 未(진 술 축 미)이면
산소탈산소의 상태는 문점일에서 사살신을
찾아 사살신의 오행으로 산소 상태를판단한다.
木 : 나무뿌리가 감았다
火 : 뱀 유골이 까맣게 탓다
土 : 유골이 분산 되었다
金 : 유골이 자갈이나 바위에 눌렸다
水 : 산소에 물이 찼다
작은방 아이들방 어머니 비명사조부 산소탈 여음귀탈

귀장술 카드 〈크기 : 가로 9cm × 세로 15cm〉
※카드 전체 수량은 15장입니다. ※카드 특허 출원중
※카드에는 원판에 모두 넣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카드를 만들어
충분한 임상을 거쳐 제작하였습니다.
문점자의 사주가 불확실시 카드를 뽑으세요. 정확합니다.
양면 코팅으로 보존성이 뛰어납니다.
광명진언의 강력한 힘을 믿으세요.